스리랑카 최초 비구니 아라한 사리탑 발굴

사리와 함께 비문 발굴
여성 출가자에 큰 의의
유적 현장에 박물관 건립
비구니승가 재건 기대도

박영빈 객원기자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탑(좌), 사리탑에서 출토된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우).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포교단으로 아쇼카 대왕의 왕자와 공주였던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장로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월 4일 해외 불교 뉴스 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로 아라한과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진 아눌라 장로니(Anula Theri) 스님의 사리탑이 공식적으로 발굴됐다고 보도하며, 스님의 사리도 함께 출토됐다고 전했다.

기원전 2세기, 마힌다 장로와 상가미타 장로니를 대표로 하는 아쇼카왕의 불교 포교단이 스리랑카에 상륙한 이래 스리랑카는 명실상부한 불교국가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상가미타 장로니는 스리랑카에 최초의 비구니 승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테라와다 교단에서 비구니계 맥이 단절 되면서 오랜 세월 비구니 아라한들에 대한 전승과 기억은 잊혀졌다.

1926년, 아누다라푸라 근교의 미힌탈레산에 있는 불탑 유적지가 고고학 유적지로 지정되고, 비문 해독과 발굴조사가 이어지면서 이 불탑이 상가미타 장로니의 제자이자,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이며 아라한과를 증득한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탑임이 밝혀졌다. 비문에 따르면 아눌라 장로니는 아쇼카 대왕의 포교단이 상륙한 당시 스리랑카의 왕세자비였다. 그러나 마힌다 장로의 설법을 듣고 불교로 개종한 후, 출가하여 완전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상가미타 장로니의 지도를 받아 결국 아라한과를 증득했음이 확인됐다. 비문을 해석한 연구팀은 이것은 당시 인도 밖의 나라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최초의 비구니를 뜻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유적지가 아눌라 장로니가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머물며 삼장을 연찬하고 설법한 곳이며, 이 탑이 세워질 당시 이곳에는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렀음도 비문을 통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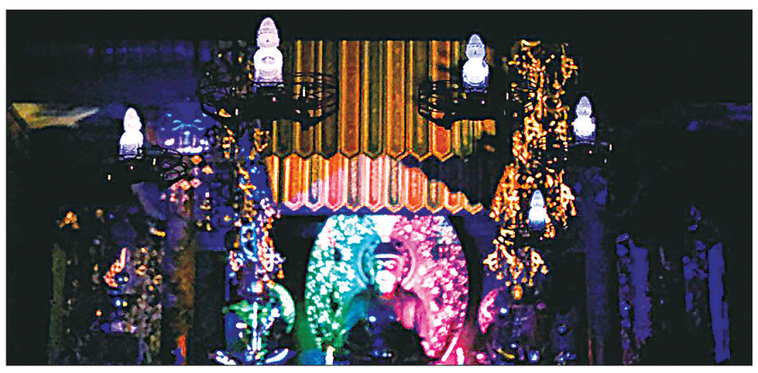
그러나 오랜 세월 유적과 사리탑이 방치되면서 빈번한 도굴과 자연재해 등에 의해 훼손이 이어지면서 2008년, 정부가 직접 보호하는 유적으로 지정하여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식적인 탑의 발굴 및 복원작업이 개시됐다. 발굴팀은 "탑의 최상층에선 수정상자에 담긴 게송이 새겨진 비문이 출토됐다. 중간부에는 석함과 함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는데, 석함에서 발굴된 사리는 현재 상가미타 장로니의 사리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팀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사리탑의 최심부의 사리공에 도달했다. 발굴팀은 "귀금속 장신구들을 포함해 500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사리탑의 주인인 아눌라 장로니의 사리도 출토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아눌라 스투파는 고대 비구니 아라한 중 한 명에게 봉헌된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유일한 사리탑으로 발표됐다. 인도 바이샬리 유적지에도 다른 비구니 아라한인 마하파자파티의 사리탑이 있기는 하나, 아눌라 스투파처럼 명확한 증거나 비문 없이 잠정 추정인 상태다.

지난해 12월 26일 발굴팀은 "장차 유적지 현장에 박물관을 세워 사리를 비롯한 유물들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근처에 다른 장로니 스님들의 사리탑으로 전해지는 불탑과 유적지들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디스트 도어는 "2022년은 세계적으로 여성 출가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해였다. 그러한 해의 마지막에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 아라한의 사리가 출현한 것은 비구니 승가의 지속적인 재건과 활성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日, 드론 타고 나는 불상 화제

현대적 재현 '아미타 내영도'
불상 주위로 9구 보살 떠올라


소형 드론에 실려 법당 안을 비행하는 '드론불'.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최근 일본 SNS에서 '반드시 봐야할 현대 아미타 내영' 이라는 문구로 공개된 영상이 화제다. 소형 드론을 탄 불상이 빛을 내면서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현재 2.7만회 이상의 '좋아요' 를 받는 등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1월 2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 는 신비롭고 근미래적인 '드론불' 에 대해 보도했다.

'드론불' 은 2018년부터 일본 불상 조각가 미우라 요잔 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미우라 씨는 "불교에서는 아미타부처님과 보살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망자를 극락정토로 내려가는 '내영(來迎)' 이라는 신앙이 있다.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내영신앙 모습을 그린 '내영도' 가 많이 남아 있다"며 드론불의 영감은 아미타 내영신앙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미우라 씨는 "나는 오랫동안 '내영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싶다' 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렇기에 불상을 공중에 띄우거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모색해 왔다"며 프로젝트의 시작을 설명했다. 이후 미우라 씨와 의기투합한 이케구치 스님이 법회를 겸하여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드론불을 띄울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지금까지 발전과 개선을 거듭해 왔다.

미우라 씨는 "현재 드론불에 사용하는 드론은 100g이하의 소형타입으로, 적재하중의 제한이 크다. 최초에는 최대한 가벼운 소재의 목불을 드론에 올렸으나 최근에는 내가 조각한 목불을 모델로 불상을 3D프린터로 출력하면서 속이 빈 형태의 무게 약 12g의 '3D프린트 불상' 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 대씩 컨트롤러로 조작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편대 비행을 실현시켰다" 고 전했다.

프로그래밍 편대 비행은 사전에 프로그램을 설정함으로써 사람의 조작 없이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이다.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세밀한 비행 프로그래밍에 난관이 있었으나, 드론불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인 드론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래밍을 완성 시켰다. 이번 프로그래밍을 통해 드론불 편대는 처음으로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9구의 보살을 공중에 띄울 수 있었다.

편대 비행하는 드론불은 이케구치 스님의 절인 류간지(龍岸寺) 법당에서 봉행된 염불법회에서 공개 됐다. 스님과 참가자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하는 가운데 드론불이 날아올라 프로그래밍 비행으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SNS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미우라 씨와 함께 드론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미타 내영도에 등장하는 아미타불과 25보살의 불상을 드론으로 띄워 내영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으로 오는 봄에 다시 금 개선을 거듭해 대중에 공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자재공덕회', 25년째 빈곤 구제

97년 난민지원 시작…25주년
요르단 의료 · 교육 지원 나서


야지드 라시드(6세)가 자재공덕회의 의료지원을 통한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사진출처=자재공덕회

대만에 본원을 둔 세계적인 자선단체이자 인도주의 단체인 '자재공덕회' 는 최근 요르단 빈곤 구제와 피난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지 25주년을 맞이했다고 발표했다. 1월 6일 불교 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자재공덕회의 요르단 빈곤구제 및 난민지원 25주년 기념성명을 전했다.

자재공덕회는 "97년 계절농장 노동자들의 식량지원으로 시작한 요르단 자선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식량지원을 통해 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규모가 커졌다. 지난 2022년 기준 11개 농촌, 19개 배급소에서 1,600여명의 취약가정을 지원했다"며 자선사업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인구가 1100만 명에 불과한 요르단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인근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이 난민들 중 대다수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약 150km 떨어진 거대한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자재공덕회는 "난민들이 급증한 2016년부터 요르단에 의료지원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편도선 제거와 같은 경미한 경우부터 개심 수술, 탈장 수술, 담석 제거 등 1000건 이상의 수술로 난민 아동과 성인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자재공덕회는 지난 6년간 155명의 시리아 청소년과 30명의 시리아 대학생, 30명의 요르단 대학생들의 교육을 후원했다. 또한 중고목재를 이용해 가구를 만들거나 헌옷에 그림을 그려 예술과 수공예품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제품 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지구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인식과 지역 공동체의 협동심을 기르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자재공덕회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요르단에서 타종교인 불교 자선단체의 선행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준 요르단 사회와, 원조를 받는 난민, 전 세계의 기부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요크 도심 포교원 확장 이전

개원 2년 만에 확장 이전 재개관
점심시간 활용한 명상수업 인기


확장 이전한 요크 불교센터에서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다. 사진출처=더 프레스

영국 잉글랜드 요크시 길리게이트에 개원한 도심 불교 포교원 '요크 불교센터' 가 개원 2년 만에 확장 이전했다. 1월 6일 영국 일간지 '더 프레스' 는 요크 불교센터의 확장 이전 소식을 전했다.

요크 불교센터는 2020년 8월 요크시 중심지 길리 게이트에 개원, 지난해 여름 7월 같은 지역에 확장이전을 결정한 후 10월 공식 재개관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불교교리와 명상 수업이 증설됐으며,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명상수업도 개설했다. 요크 불교센터는 매주 승가의 밤과 불교입문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포교원장인 샤캬파다(Shakyapada) 는 "요크 불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확장이전을 결정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재개원 축사를 전했다.

현재까지 요크 불교센터는 세 번의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2명이 새롭게 수계를 받았다. 샤캬파다 원장은 "이곳에서는 마음챙김과 같이 현대적인 불교 가르침을 기반으로 더욱 깊이 수행한다. 부처님은 예언자나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철학자에 더 가깝다"면서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의 행복을 바랐고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가르쳤고 이 가르침은 내 삶을 변화시켰다. 불만이 가득했지만 가르침을 통해 나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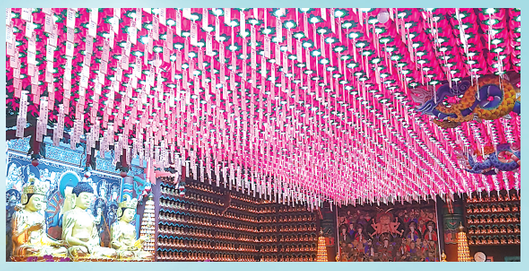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